

『KFPA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자연재해보험 발전 방향 -



KFPA는 현재 추진 중인 자연재해 관련 업무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의 앞선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방법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자연재해 보험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자 10월 15일(화) 오후 2시 KFPA 1층 대강당에서 「자연재해보험 발전을 위한 KFPA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FPA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보험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연재해 및 보험산업과 연관된 해외 유명업체의 비즈니스 모델(CAT model, 재해규모분석)과 보험연계증권(CAT Bond)의 도입 필요성 및 재해손실지수 활용성을 알리고, 국내 자연재해보험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KFPA에서 개발 중인 풍수재위험도지수 산출 모델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풍수재위험도지수 산출모델의 언더라이팅 활용(KFPA 이영규 박사) △대재해채권의 국내도입 필요성(보험연구원 전성주 박사) △CAT model과 위험관리(RMS社 Shennon Shen 박사) △PCS와 대재해채권(PCS社 Joe Louwagie 상무)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후 질의 및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KFPA 이기영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CAT model 및 CAT Bond를 활용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위험관리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KFPA도 자연재해보험이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1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개최

KFPA는 10월 18일(금) 11시 KFPA 1층 대강당에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수상자와 손해보험회사 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 『제1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화재 및 자연재해에 관한 조기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안전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여,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서, 올해에는 619개 학급 16,118명이 참여하였다.

KFPA는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 화재 및 자연재해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를, 지도교사에게는 『화재예방교육 지도서』를 배포하고 두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한 후, 평가시험을 통해 우수한 학급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차지한 강원 온정초등학교 5학년 1반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 학급에는 소방방재청장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 4개 학급에는 KFPA 이사장상과 상금 60만원, 불조심 어린이상 10개 학급에는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장상과 상금 40만원을 수여하였고, 2년 연속 수상한 학교에는 ‘화재안전 우수학교 인정패’와 상금 20만원을 수여하였으며, 올해는 4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